

- 1. 종교다원주의 배경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19호
3월 18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하나님의성회

예하성·일본AG와 협정 맺어

비자취득 및 양국 현지 선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병목 목사와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는 지난 3월 1일(수) 낮 12시 요코하마 시내 소재로조호텔에서 일본 하나님의성회와 양국 교단 간 선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선교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예하성 총회장 김병목 목사와 임형순 목사는 한국 선교사들의 모인 일본지교회 임원들과 함께 일본 하나님의성회를 방문 일본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土屋 孝司를 비롯 임원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협정과 선교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에서는 한국 하나님의성회와 일본 하나님의성회 교단은 상호 선교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선교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견할 때 한국 예하성 교단 내에 담당 부서를 설치해 신사하며 담당 부서에 연락 담당자를 두고 선교사의 정보에 변경이 생길 경우 바로 연락을 하기로 했다.

또한 선교사는 일본 교단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일본 교단과 협력하며 선교사와 관련된 경제적인 것은 한국 예하성 교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일본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경사 파견 등의 사무적인 원조를 실시하는 것 등을 확인했다.



예하성 총회장 김병목목사와 일본 AG 총회장 목사

이날 일본 교단은 재일 한국 예하성 교회와 전도소 등의 성장 발전에 협력하며 한국 예하성 교단 파견 선교사는 그 교역(목사, 전도사) 자격에 근거한 다 들의 내용을 골라주었다.

특히 일본 교단과 한국 예하성 교단은 의견 조정을 위해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본 교단은 해당 선교사의 비자 취득 등 협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정했다.

예하성 일본지교회 정기지방회

예하성 일본지교회는 지난 2월 28일(토) 일마누엘 교회(단원) 백서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우상과 사신)이 가득한 나라 일본에서 복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염순복 목사의 사 회로 시작되어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의 설교, 선교 국장 임형순 목사의 관련 순으로 이어졌다.

심용재 목사는 이날 1월 1-11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은 충실한 종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충성된 복음증거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일본 전 역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강조했다.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개최된 정기지방회에서는 한 회기 동안의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 모두가 작은 임부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회회에 임해 줄 것과 임원으로 협력하여 활발한 교회를 나누는 한편 교단과 지교회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단총회와 장로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여 지 교회에 회신하고 목사, 부회장에 김병목 전도사, 총무 장영준 목사, 서기 백석 목사, 회계 이영진 전도사, 감 사 전영선 목사, 고문 염순복 목사가 선임되었다.



예하성 - 일본 AG 선교협정



예하성 - 일본 AG 선교협정을 마치고



일본 지방회 정기지방회



일본 지방회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필리핀 지방회 31차 정기지방회

모리아산국제선교센터 헌당예배 드려



필리핀 지방회는 지난 3월 8일 모리아산국제선교센터(타이완) 목사)에서 모리아산국제선교센터 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리고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막중한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짐을 다짐했다.

이날 교단 정기 총회장 백진기 목사(한양대학교)는 설교를 통해 땅 끝까지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충만한 필리핀 선교사들의 헌신



필리핀 지방회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으로 선교사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는다고 강조하고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교단 전임 총무 이강진 목사(다시방교회)는 축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오후 필리핀 지방회는 모리아산국제선교센터에서 31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다룬 나날 필리핀에 와서 땅 끝까지 수고와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인로 목사의 사모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요셉 선교사의 대표기도, 임형순 목사(선교국장, 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장 26-11 말씀을 본문으로 "다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다하여 선교에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자"고 격려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심용재 선교국장(국제총회장), 오세준 목사(교단 부총회장), 총무, 참찬은 교회의 격려사와 이강진 목사(교단 전임 총무, 다시방교회)의 축도로 개최예배 마치고 곧바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뒤 신임위원을 선출했다.

31차 임원진은 회장에 이요셉 선교사, 부회장에 이도식 선교사를 선임하고 나머지 임원은 추후 결정 하기로 했다.



필리핀 지방회 산하 모리아산국제선교센터 헌당예배 장면



‘풍파의 원인 파악과 적절한 대응책’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사107:23-31)



조석목 목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풍파가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풍파의 성격과 원인을 분명하고 이를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면 어떤 전화위복이 되고 유익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여러 종류의 풍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원인과 적절한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거부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풍파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려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다스려 가는 배에 올라 도망가다가 대풍을 만나 배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즉시 풍파가 잠잠해지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잡혀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하기도 갓사와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떼어내셔서 요나를 육지에 돌려 보냈습니다. 요나는 바르사람을 성실하게 존경하였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예배와 전도와 봉사의 공물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풍파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도의 본분과 사명에 충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풍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양이여의 가적을 배후신 후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파가 밀려들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뒤로 앉아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분사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가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위로 걷기 시작하다가 도중에 풍파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들어가자 손바닥이 그늘 밑으로 가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배일이 그쳤습니다. 이런 풍파는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풍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예기치 못한 풍파와 같은 문제와 곤경에 처할 때, 성경이나 자의 느낀 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전진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훈련이 필요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사탄의 책략으로 인한 풍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광풍이 휘몰아쳐 파도가 넘쳐들어서서 배가 침몰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깨우려 "주님,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나?" 하시고 배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즉시 배일이 그치고 배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파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행하려고 다투는 사탄의 책략으로 일어나는 풍파입니다. 이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편 풍파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풍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편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중에 탄 배가 크레타 섬 남단에 위치한 미항에 정박하였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항의 유익에 있는 파스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 원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바울은 이를 만류했습니다. 저수들을 설교하는 배부터는 바울의 말보다 성경과 선조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하려했습니다. 얼마 못되어 유익을 보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지중해를 표류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에 빠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생각은 모두 손상이 없었고 오직 배만 아니라 나는 내게 맡겼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한 산에 닿게 될 것이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도착한 후 리네 섬에서 바울에게 신부의 온사가 나타나서 후장의 부인과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 섬을 떠날 때까지 석 달 동안 섬에서 부흥회가 전개되었습니다. 바울이 겪게 된 이런 풍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중에 풍파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도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은혜와진리의교회)

“교실 붕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

4천여 서울시민 결집...서울시의회 앞 대규모 집회 개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4천여 명 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지난 3월 10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동성애옹호연대(대법원연립(동남), 전국학부모24개연립(전남), 진정성향들(대법원)내부자발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성향) 등 단체들이 함께했다.

창당인 지난 14일 수리 이르면 올해 결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6434명(당시) 지난해 8월 창당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2월 14일 수리했다. 집회가 열린 이날은 지난해 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인사들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인사 선출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리된 서울 학생

인권조 폐지 창구권을 수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이는 봉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창구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령의오는 수리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과도한 자율권 부여, 교권은 망가져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양유권과 갈등을 초장하고, 학교 행정을 무너뜨리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2명으로 아잡니다



한기총 제28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정서영 대표회장, “한기총을 지키고, 연합정신 이어가겠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3월 9일(금)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김장진 목사의 사 회로 시작되어 공동회장 고경환 목사의 대 표기도, 공동회장 류금순 목사가 성경봉독, 전임 대표회장 김지연 목사의 설교, 사무총 장 김정환 목사의 내빈소개, 서기 이윤은 목 사의 약속소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취 임사, 전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취임배 중증 등의 순으로 드렸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기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한기총 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고 공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들을 인도하 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길과 통일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더욱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가치 관을 요구하고 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바라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 라갈 수 있는 목회자의 자세를 감명하고 있 다. 저는 세상의 바보와 바비가 우리보다 더욱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책역이라 생각하 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스천이라면, 목 사님이라면, 삶의 바른 표본을 보여주고 따 라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세상의 간 절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세계를 살리는 인류의 유대관 정신이요, 평화의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기총을 섬기려는 마음과 뜻을 고백하며, 한 기총과 한국교회 앞으로 대韓인국을 밝 게 바꾸는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취임사 를 전했다.

김지연 목사는 요 8:1-11 말씀을 본문으 로 ‘예수의 정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기총이 예수의 정신에 힘입어야 한다. 한 기총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 는 기도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며 “기도의 시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의 시각 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죄와 불의 속에 있 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한기총과 대표회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류금순 대표회장이 축하 회원을 보내는 가 운데 사면시회수석실 강승규 수석이 축하했 다. 유석열 대표회장이 축하 회원을 보내는 가 운데 사면시회수석실 강승규 수석이 축하했 다. 유석열 대표회장이 축하 회원을 보내는 가 운데 사면시회수석실 강승규 수석이 축하했 다.

유석열 대표회장이 축하 회원을 보내는 가 운데 사면시회수석실 강승규 수석이 축하했 다. 유석열 대표회장이 축하 회원을 보내는 가 운데 사면시회수석실 강승규 수석이 축하했 다. 유석열 대표회장이 축하 회원을 보내는 가 운데 사면시회수석실 강승규 수석이 축하했 다.



목자카페선교센터 창립예배

원로목회자들의 섬터이자 영적교제의 장



목자카페선교센터 창립예배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대원로 소재 한국목회자교 회에서 드려져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의 전 진기지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임광재 목사 사회로, 문무열

목사의 대표기도, 이백권 목사의 설교 순으 로 진행했다. 이목사는 에스겔 37:1-19 말씀을 본문으 로 “너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라는 제 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길이란 정년대

였다”며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더욱 수준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가치 관을 요구하고 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바라며,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 라갈 수 있는 목회자의 자세를 감명하고 있 다. 저는 세상의 바보와 바비가 우리보다 더욱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책역이라 생각하 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크리스천이라면, 목 사님이라면, 삶의 바른 표본을 보여주고 따 라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세상의 간 절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동대, 개교 28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인성교육 대상 수상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순)는 지난 3월 7일(화) 포항 한동대 호텔빌딩 강에서 개교 28주 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는 교육부 주관 퇴직교원 정부포상으로 근정 포상(모양준 교수), 국무총리 표창(유정훈 교

수), 대통령 표창(김성욱 교수) 포상을 각각 수 영했다. 이어 교직원들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20년 근속상, 10년 근속상, 근속상 등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1995년 2월 개교 이래

김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4년제 종합 대학교로 첫 발을 내딛은 한동대는 개교 이듬 해부터 “배워서 남주자”는 교육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1면에서 이어짐

이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의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 니”라며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과 임 인권, 질서유지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채 학부모와 교사의 인물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절대시하는가. 이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학생 에게만 특별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인물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부당한 것”이라며 “너 욕이 학생들에게 동지애를 옹호하고 교도 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밟 혀야 하는 건 교육권과 훈육권을 파괴 하는 어떤 권위정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이 필 요한데, 현재 인권 관련법이 없기에 인권 조례는 위법”이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 례를 비롯한 모든 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써 개와 학생이 없게 되고, 교사를 잠정적 인권 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빗자꾸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

를 밀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가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 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 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그로 인 해 오히려 학습분위기 나빠지고 다른 학 생들에게도 피해를 끼쳐 학생 성향이 떨어 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 례가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들 청소년의 프라미스 조정은 악법 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일부 삭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법 이라고 밝혔다. “동성애 옹호 조항을 삭 제해야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지 지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없기에 동성애 옹 호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 6곳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광역시에서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일기에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 “젊은 이들”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실체는 이윤·최소한의 프라미 스를 조장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파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

ctdotky©

한교연, 2023 사랑의 연탄나눔

연탄 25,000장 등 쌀·라면·화장지 전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총대심(목사)은 지 난 2월 21일(화) 오전 10시 서울시 노원구 중 계본동 백사마을 연탄교회(허기복 목사)에서 ‘2023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백사마을 주민의 난방과 에너지 지원으로 120 가구에 사랑의 연탄 25,000장을 지원했으며, 독거노인 50가구에 쌀 500kg, 라면 1000개, 두 두마리 화장지 300롤을 각각 전달했다.

1부 예배 2부 전달식 및 연탄 나눔으로 진행된 이날 개회예배는 이영환 장로(삼일 회장)의 인도로 김효종 목사(영예회장)의 기 도, 김갑자 목사(여수유원지)의 성경봉독, 대 표회장 송대심 목사의 설교, 김광근 목사(상 인회장)의 축도, 사무총장 최기수 목사의 광 고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송대심 목사는 요 10:36-37 말 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세상에는 강도 만만 곳이 많다. 강도도 인해 상처받은 사람



연탄 나누기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강도 만만 주의 이웃이 되었으며 이는 주님 게서 보이는 사랑이자 긍휼이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가까이 찾아오는 것은 내 마음에 긍휼이 있으나 없느냐에 달

려 있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그리 스토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연탄날처럼 따뜻한 온기가 줄고 아무런 세상이 조곤조곤 따뜻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 104주년 3.1절 기념예배

3.1운동은 기독교가 앞장서 주도한 운동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회(대표회장 김 동권 목사, 지도자협)는 3절을 맞아 지난 2 월 2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104년 전 그날 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1919년 31절집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분

연히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추양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에서는 삼일회장 김 진호 감독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용복 목사와 김태환 장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특별강연 의 시간도 가졌다. 먼저 31절을 살자”를 주제로 강연에 나 선 강령목 목사는 3.1절의 의미에 대해 “31

만세운동을 있게 한 일본의 강권 침략은 정 확히 말해 한일 합방 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 제성이 담긴 ‘병합’이라 해야 옳다”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3.1운동은 미국의 일신대 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주고 고통의 서거가 불을 붙였다”며 “기독교가 앞장서서 주도한 운동이며 하나님께서 명성을 끌어주 셸라고 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강 목사는 또 “3.1운동은 37기의 의미가 있다”면서 “첫째,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고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셋째, 만민이 민족의 자주성이었 다”고 규정했다. “모든것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늘 갖고 감사하며 신 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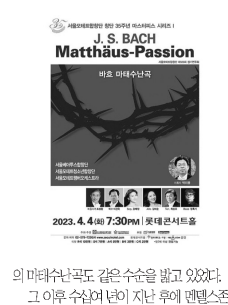
서울모테트합창단 창단 35주년 맞아

‘바흐의 마태수난곡’ 연주...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모테트합창단이 창단 35주년을 맞아 4월 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마태수난곡 첫 번째 시리즈로 ‘바흐의 마태수난곡’ (Matthaus-Passion)을 연주한다.

바흐의 마태수난곡은 그가 작곡한 곡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일 뿐 아니라 합창음악 과 종교음악의 범주를 넘어 서양음악의 역 사 속에 전연히 빛나는 인류 최고의 음악적 금자탑으로 받아들여지는 작품이다.

레오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의 연 주에는 그 절대적인 순간에만 존재하는 시 간 예술이었다. 당시의 작곡가가 생존해 있 을 때는 어떤 반 연주자도 하지 않았, 사후 에는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아 악보가 분실되 거나 아딘기로 사라지기 십상이었었는데, 바흐



은 어떤 시절 그 생애나 기밀에 전할 마나에게서 여러 고서적이나 악보들을 선물 로 받았었는데 바흐의 작품들을 받아 본 순 간 그의 진가를 파악하고 자신이 이 작품들 을 얻어내는 다시 세상이 꼬잡이대고 말했 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태수난곡 이 라이선스(리모바스)화하여 35주년 정 책화 100년 뒤인 1824년, 뮌헨스존은 주변의 비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뮌헨에서 이 곡을 지휘하며 엄청난 호평을 이끌어냈다. 대중적인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학자들은 물론 다양한 연주자들에게 바흐 음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연주 를 통해 바흐에 대한 연구와 연주자 다시 할 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아동 심리사회적 지원

국제이바스, 트라우마 예방 위한 아동친화공간 조성도

글로벌 아동재단 전문 NGO 국제이바스 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심리사 회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진을 겪은 아동들은 불안감과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위험 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이바스는 지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안타

레까지 총 6만 1천여 명의 것으로 나타났 다. 약 1,760만 명의 주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6만 1천여 명이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을 겪은 아동들은 불안감과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위험 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이바스는 지진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안타

키아 지역을 시작으로 이재민들이 정착한 텐 트촌과 공원 등에 아동친화공간(CRS Child Friendly Space)을 조성하여 심리사회적 지원(PSS Psychological Support)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데(지진)안타리아에 이다나 지역이 2개 의 아동친화공간을 구축해 운영하며, 150명 의 아동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다른 지진 피해 지역 아동 대상으 로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교사 매 뉴얼을 번역하여 배포하는 한편, 현지 봉사 자들과 NGO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했다. 이다나 지역에서는 현지 파트너십과 협 력하여 병원과 학교에서도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메틱더엘 대표 이미나 교수 아신대학교에 발전기금 기탁

아신대학교는 학교 동문이자 코스메틱더엘 스페셜 대표인 이미나 교수로부터 교육, 연구 및 학생지원 등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받고 지난 3월 2일 진행된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초에도 수차례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어 기탁한 발전기금 총액은 1억 원이 넘는다.

방송원이었던 이 교수는 연세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스페셜더엘의 대표로 시작하여 현재는 건강·미용용품에서도 '히나'의 브랜드를 이어나가는 브랜드로 유명해져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방송원, 사업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교인 아신대에서 리더십과 대인관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묘교회가 1억 5,000여 개교와 함께하는 다. 경기도도에 강사료 초빙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아신대 정영환 총장은 이미나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전달받은 발전기금을 통해 아신대 학생들이 선배인 이미나 교수와 같이 실과 신앙이 모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전했다.

제4회 D.F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가정, 학교생활 충실한 유자녀 11명 수혜

(해)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석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부 사무실에서 제4회 D.F장학회(위원장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장학금으로 선정된 본부 장기기증인 유자녀 11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최근 9년간(2017~2021년) 본부 장기기증인 2,334명의 연평균을 살펴보면, 30~50대가 1,413명으로 약 60.5%에 달해 경제적 자원이 필수적인 자녀를 둔 부모는 가정들이 노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본부는 2020년부터 DF장학회에 참여하여 기증인의 유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대한 자금성을 품고 경제적 제약 없이 꿈과 재능을 이룰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수여식은 구산전교교회(안성광 목사), 안성중교회(송영환 목사), 원광중교회(박병도 목사),



한바음교회(문봉순 목사) 성도들의 나눔의 손길이 있어 장학금이 가능했다. 특히 구산전교교회와 안성중교회에는 장학금 발족부터 지난 4년간 본부 장기기증인 유자녀를 위한 후원을 이어오며 성장하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D.F장학회는 중곡동지침(정장 김성원), 내버려 해(박진석), 안배트비지니스재단의 개인 기부 참여로 많은 장학금의 나눔도 더해지며 의미를 더했다.

올해 DF장학회 장학금은 안성광 군(안성광 씨의 자녀, 중학교 2학년), 김우진 군(안성광 씨의 자녀, 고등학교 1학년), 김민재 양(김정현 씨의 자녀, 고등학교 2학년), 최지수 양(최한현 씨의 딸, 고등학교 2학년), 배진우 군(배종수 씨의 자녀, 대학교 1학년), 김형진 군(배종수 씨의 자녀, 대학교 2학년), 신준원 양(배종수 씨의 자녀, 대학교 2학년), 홍은지 양(한미영 씨의 자녀, 대학교 2학년), 문소희 양(배종수 씨의 자녀, 대학교 3학년), 박영림 양(배종수 씨의 자녀, 대학교 3학년), 김도연 군(김형진 씨의 자녀, 대학교 3학년) 이상 11명으로 모두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인 맞춤형 전문프로그램 육성

NGO 월드뷰티엔즈 8회 정기총회 개최

소셜서비스NGO 전문기관인 (사)월드뷰티엔즈(이하 장 정영환)는 2월 27일 비포구 대충동 월드뷰티엔즈 강연실에서 정기이사회 및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수월지출예산 및 신규사업들을 승인했다.

최인숙 회장(신대대학교 교수)은 K-뷰티소사이어티 연구소 소장은 신규사업을 제안하면서 "신대대학교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가 주관하여 비포구와 의정부 시 관내 노인인과 후원자와 독자노인을 위한 월별 마음의 시 정교회를 통해 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 함양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교회를 발전시켜"고 밝혔다.

정영환 이사장은 NGO연합사업으로 "고독사제로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력의 등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고독사 위험에 있는 후원자와 독자노인 특히 남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과 40~50대 고독사 위험 1인가구를 중심으로 발굴하고자 고독사제로 매뉴얼



을 제정해 적극지역사회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영환 사무총장은 연수사업 보고를 통해 '월 드림 노인대학 운영의 확대를 통해 후원자와 독자노인께 웃음치로, 노래교실, 감사일기쓰기, 영어회화, 문화선, 미술치료 등 소셜 서비스 전문 NGO로서 재능기부와 후원자를 위한 지원 등 노인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이단들의 대면 포교 활동 재개 주의보-현대종교 3월호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단들의 포교활동 역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단들은 주·일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특히 유자를 위해선 발레와 정보력이 좋은 청년들이 필요하기에 비대면 포교를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대면포교도 재개되며 불만만 불고만 포교에 박자를 기하고 있다.

한류는 신변과 편하게 대면을 주고받던 중 언론 학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며칠 뒤 신변과 함께 전화를 보며 가지고 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신변과 신변의 친구로 보이는 B씨가 있었다. 신변은 B씨도 전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같이 나왔다며 양해를 구했다. 신변과 B씨는 A

다음날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가상, 증강, 혼합현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신변과의 만남의 장이 열렸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학과 신변은 사람과 매점이 되고 그 신변은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다.

한류는 신변과 편하게 대면을 주고받던 중 언론 학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며칠 뒤 신변과 함께 전화를 보며 가지고 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신변과 신변의 친구로 보이는 B씨가 있었다. 신변은 B씨도 전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같이 나왔다며 양해를 구했다. 신변과 B씨는 A

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잘 해주며 A씨는 편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전화를 약속이 또 잡혔다. 셋이 다시 모이기로 한 날 갑자기 신변과 시간이 안 된다며 B씨와 같이 보고 오라고 했다. 그렇게 만난 B씨는 A씨에게 "모든 언론학의 기본 배경은 성경인데, 종교를 떠나 함께 성경공부 해보자"고 전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생각해보던 중 수능이 끝난 후 고3에서 심한 이단 특강 때 들은 내용이 지금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소복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파편의 시간들 속에 전도의 종소리

전도의 고요함이 태고의 적막이아니라,
파편의 시간들 속에 서로 부딪쳐 깨어질 때
야, 모진 합성아!
비로소 어린 솔렘다
나 오늘 전도의 품에 안겨졌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 시편 116편 12절

오, 주여 내 안에 새별 빛이
이웃들을 비추소서!
순례자의 길어워 남아질때
당신의 고상한 손길 주시어
나로 연약함을 면케 하소서.

오, 주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교회유대를 배워게 되었나이다.
내게 이르소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겹고 이르시니.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자녀를 무한하게 인양함 목사님
천만번교회 대성회로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은혜의 전자기성령찬양가운데 열렸다.

자신들 임은선 증경 총회장님의
강력한 영력의 선배 밑에서
강경준 대표총대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나가 되었다.
가족세전 박영수 목사의 폭발적인 전도와

성령자유의 한복을 담당했다.

기뻐한 비전으로 삼김을 다 하시고
선교적 비전 마인드로 탁월하신 안장남 목사님,
모두가 놀랐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장기적 여사장은 예비된 영혼이었다.
아름답고 빛나는 교회에 있었다. 한다.
영광기도 시키고 기쁨사건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만대까지 오게 하신 것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기타 다른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역시 박영수 목사는 지치지 않고
이리저리지 안제든지 마음에 손꼽고
영광기도와 축복기도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가족세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가족세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소복교회 강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8730-2573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에서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고,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여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석장령)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청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청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런길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새바깥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헌교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축복받은 신앙인의 공통점



한국교회 회장 최태성, 미원중앙연구소장 임병산, 제주은행회장 김봉학, 한국원자력연구소 초전도체 연구실장 원동원, 전 문공부 장관 오재정, 가나안농군학교 김종일, 작가 김성일, 이랜드 사장 박성수, 고려연대 회장 조규철, 고려대의대 교수 성인화, 건국대 교수 유태정 등은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각자의 성정배경도 다르지만 지기가 공통되는 축복받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신앙수가 볼만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분들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모두 다 어려서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탄의 세력, 전쟁, 불치의 병, 정적의 병행 등 모두 모였을 때보다 심각한 고통과 커다란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인내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셋째, 세월이 지나수록 그 감사와 감격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말하고, 죄악된 생활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역경을 만난 후 전적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후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

고 초조하고 무능한 인간임을 통감하였으며, 자신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복무함을 했으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더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축복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들은 자기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재물로, 또는 자기 분야의 지식으로, 몸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기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능률적으로 헌신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분들 가운데 80%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떤 때부터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일곱째, 이분들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인간 승리의 표본입니다. 이 분들이 겪은 사탄과 역경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하나님께 언더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는 모든 것이 합하여져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새벽의 묵상

갈가의 나무와 작은 풀들이

생기를 찾아 가지개를 파는

이슬내린 새벽길..

물기 머금은 작은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들이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들이~~ 들풀들이~~

너희들이 깨만 이슬이 내려

생명이 자라게 하는 줄 아니냐!

내게는 이슬보다 더 귀한

말씀의 만나 먹이시고 자라게 하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신단다.

말씀의 단비가

마음에 내려 생기를 찾아

영혼의 가지개를 파는

이슬내린 새벽길.

영혼 향한 간절한 마음

기도로 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슬 머금은 작은 풀잎이 내 눈에 초록 들어온다.

자연들과 소근래는 즐거움을 주 안에서 누린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ucls.org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8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연합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설립은 사명을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턴이었으며 고교를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앙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정요약에 있는 자 3. 신앙결례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대학 4년제 학사(신학)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학교에 입학한 후 2년 이상 재학한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서학점서 - 원장서
 - ④ 주둔등록증(2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모집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 계좌입금: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8 (제6층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정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동종종교대학원 진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ls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ls.org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8

2023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및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소월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교회의 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자를 양육하는 사명을 다함으로, 학생들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원 훈**
 - 발음준비, 성경강론
 - 목회실용
 - 은혜의 편지에게 복음전파
-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 8 (양평동5가) 90-3
 - 사이버신학연구원 교학처 (070)7205
 - 홈페이지 : www.ucls.org
 - e-mail: ucls181@naver.com
-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inister of Ministry)	3학기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과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신학) ● 타 교단 목회학석사 후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입금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고졸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둔등록증(2개월 이내 발급)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신학) 1부
 - 타 교단 목회학석사 후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6. **특정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턴)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회자로써 사역을 하게 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원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이후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ls.org 에서 출석 신청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